

# 2023-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에세이]

※ 휴면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속		학번		비고
이름		연락처		

제목	간호사란 이런 것이다.			
교과목	성인간호학실습1	담당 교수명	김진희 교수님	
구분	전공			

먼저 나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영어보다는 수학을, 사회보다는 과학을 더 좋아했었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외울 수 있었고, 언어보다는 수식을 풀이하는 것이 편한 나였다. 그러다 보니 돌봄과 도덕, 사랑과 이해 등 추상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과 수많은 의학용어들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간호학과 3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의학지식들은 시험을 본 후 머릿속에서 삭제되기 일쑤였고, 기억에 남는 정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자유라는 것은 자꾸만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벼락치기 밤샘 공부'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학업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비록 남는 지식은 없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이런 내게 변화를 준 것은 3학년 1학기의 한 실습과목이었다.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는 총 3년간 실습 과정을 거치는데, 2학년에는 교내실습, 3~4학년에는 병원 실습을 하게 된다. 또한, 이론과 실습을 2주마다 번갈아 하는 타 대학과 달리, 이론을 10주 동안 끝마치고 실습을 5~6주 동안 하게 된다.

<성인간호학실습1>은 그중 3주 동안 이루어졌는데, 김진희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2주간의 병동 실습을 주제로 다뤄보려 한다. 실습과제로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일지, 간호술 수행 리스트, 자가평가서로 총 4개가 있었다. 그중 '케이스 스터디'란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학습하는 과정인데, 면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 수치들을 이해해서 직접 간호를 수행해보는 활동들을 한다. 이것을 통해, 그 환자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COPD로 인해 내원하셔서 수술받으신 환자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살면서 처음 하게 된 '케이스 스터디'는 어려웠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든 의학 정보들과 지식들이 거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렇게 병동의 분위기와 간호사의 업무들을 관찰하고 실습하다가 시간이 흘러만 갔다.

그러다가 컨퍼런스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게 돼서, 부리나케 환자를 면담하기로 했다.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한 면담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나의 두려움과는 달리, 환자분은 친절하게 답변해주셨고 환자분의 삶과 과거 이야기들에 대해 나눌 수 있었다. 면담이 끝나고, 나는 환자와의 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환자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게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주었는데, 간호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어 실습하는 동안 소극적으로 임했던 내가 주저함 없이 병실에 들어가 환자분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내게 경험

한 성공 경험 중 첫 번째였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험과 동시에 자책감이 들었던 경험이기도 했다. 환자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질병인 COPD 환자였음을 간과하고 면담을 30분 동안 해버렸던 것이다. 면담 끝에 환자분이 힘들어하시고 말을 잊지 못했던 모습이 자면서도 자꾸만 떠올라 자책하게 되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면담을 해버렸다는 충격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컸다. 환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전문지식에 대해 깊게 알고 있어야 하는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큰 경험이었다.

그 후, 밤마다 환자의 의료기록과 간호기록, 검사결과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환자분과 질병에 대해 더 이해해서, 부족함이 덜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공부했다. 간호일지를 통해 환자가 겪은 상황들을 서사적으로 공부했고, 투약된 약물을 정리하며 질병을 공부했다.

그렇게 1주 차 컨퍼런스 날이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중요한 자료의 누락, 적절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해 팀원들과의 소통이 두 번째 고비가 되었다.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깨어있는 시간이 달라 소통이 어렵고, 불분명한 책임 분배로 불화가 일어나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컨퍼런스에서 겪은 실패는 나를 더욱 성장시켰다.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가 팀원들을 위해 더 노력하자는 결심을 하게 됐고, 팀원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자, 팀원들 사이의 불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팀을 만들어갔다.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며 검토했다.

그렇게 2주 차 컨퍼런스 날이 되었다. 1명이 도맡았던 1주 차 발표와 달리, 이번에는 나를 포함해 3명이 발표를 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2주간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빠짐없이 브리핑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때는 서로가 도와 헤쳐 나감으로써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 있는 성공 경험이었다.

이외에도 2주간 겪었던 병원 병동 실습은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를 주었다. 병동의 분위기, 차차 간호사와 액팅 간호사의 업무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겪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임상에서의 실무들, 병동 간호사의 고충들을 보고 들으며 간호사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 내가 희망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케이스 스터디 과제는 <성인간호학실습1> 강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면담 기술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피드백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며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한, 조별과제라는 점에서 협동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갈등 극복 후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간호사’란 혼자자가 아니라 ‘같이’일하고 협동하는 직업이다.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과제수행이었지만, 이번에 내가 경험한 기회는 나중에 환자의 건강을 목표로 했을 때 큰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리하자면, <성인간호학실습1>은 내게 큰 학습의 기회를 주었다.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지식, 더 나아가 나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인생 첫 병원 실습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간호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지식들과 돌봄의 태도가 크게 느껴졌고, 나의 학습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는 평가점수 등 눈에 보이는 결과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정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실무를 목표로 학습을 이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2주간 환자와 질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깊게 탐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이어 나가는 것이 내게 숙제로 남는다. 이 경험과 앞으로 이를 학습 결과를 토대로, 환자 중심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간호인으로 거듭나겠다!

정말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인간호학실습1>을 수강할 분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실, 이번 케이스 대상자는 입원하신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기 너무도 좋은 케이스였다. 만약, 환자를 선정할 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기회는 비록 피곤하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동료와 함께 헤쳐간다면 너무나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본교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제출자: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